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7년 1월 조사 -

2017년 2월 3일

주식회사 테이코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트럼프쇼크로 발목 잡힌 회복세

~ 미국정책으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고조 ~

(조사대상 2만 3,796사, 유효회답 1만 195사, 회답율 42.8%,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5.2가 되어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연료 등의 코스트 증가나 기상 불안정 이외에 미국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도 영향을 미쳐 회복세가 제자리 걸음이었다. 향후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2. 『운수·창고』 『제조』 『건설』 등 4개 업계가 악화, 『소매』 등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연말수가 잠잠해진 가운데 코스트부담이 증가하여 인건비부담과 더불어 원유나 강재가격, 식재가격, 전기요금 등 폭넓은 항목에서 상승세로 추이하였다. 또한 미국 트럼프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보호주의에서 기인된 불투명성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코멘트도 다수 보였다.
3. 『홋카이도』 『토카이』 『츄고쿠』 등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미나미칸토』 『호쿠리쿠』 『큐슈』 3개 지역이 개선, 『킨키』가 보합되었다. 대설 등의 기상 불안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이외에, 자동차 등 수출관련이 주력산업인 지역에서는 미국 트럼프정권으로 인한 마이너스효과에 대해 불안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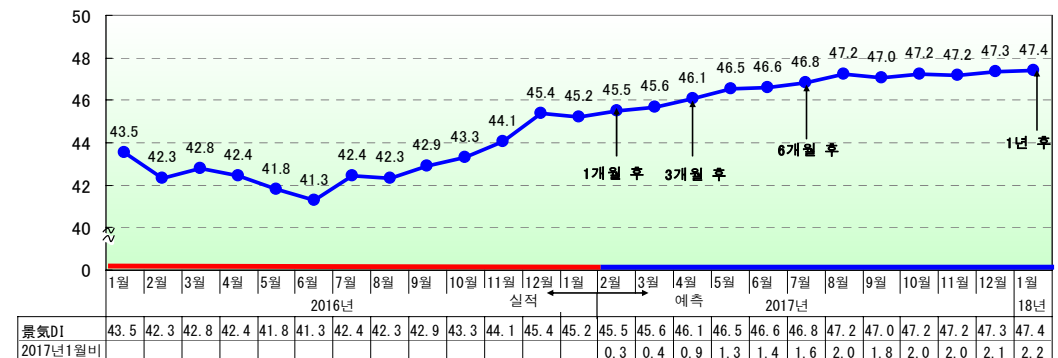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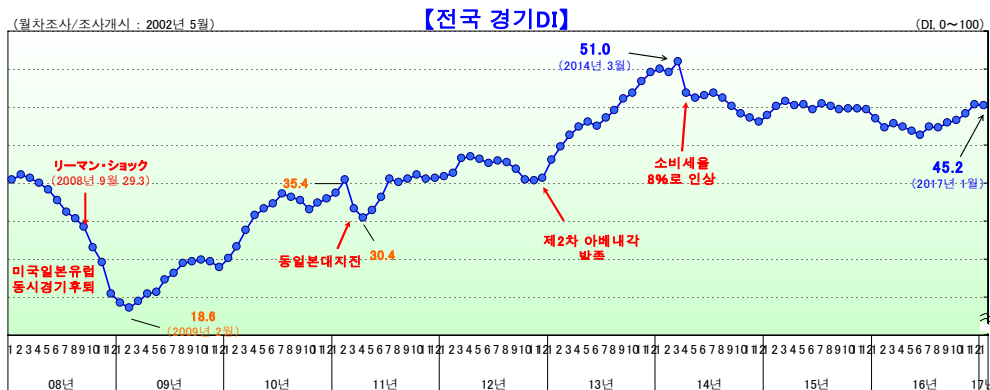
< 2017년 1월의 동향 : 주춤하는 회복세 >

2017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45.2가 되어 5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1월의 국내경기는 대형한파로 인한 대설 등의 기상 불안정이 각 지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쳤으며, 원유가격상승으로 인한 가솔린·경유 등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기업의 코스트부담이 증가하여 체감경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개인소비는 신선식품 등의 가격상승이 악재였지만 자동차관련이나 난방용수요 등이 견조하여 『소매』가 개선되었다. 해외에서는 미 트럼프대통령의 잇따른 대통령명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불투명성이 고조되는 등 대통령의 경제정책(트럼프노믹스)을 향한 불안증대가 영향을 끼쳤다. 국내경기는 연료 등의 코스트증가나 기상 불안정이 하락요인이었으며, 미국발 마이너스효과도 더해져 회복세가 발목 잡힌 상태이다.

< 향후전망 :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향후의 국내경기는 미국정책으로 인한 불안의 고조에 주목된다. 트럼프노믹스의 움직임과 함께 이민정책의 향방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은 환율변동 등을 통해 일본경제에 마이너스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국내동향은 2016년도 제2차 및 제3차 보정예산의 조기집행이 예상되며, 금융완화정책의 지속은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근무개혁이나 일억총활약사회(一億総活躍社会)의 실현을 위한 시책이 전망되는 점은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데에 있어 호재료가 될 수 있다. 향후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